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’ 2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홍정민, 고지우, 유현조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10일(목) ~ 7월 13일(일) |
| 3 | 장 소 | 하이원 컨트리클럽 [마운틴(OUT) / 밸리(IN)] |
| 4 | 주 최 | 하이원리조트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4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08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고지우, 박혜준, 이예원, 홍정민, 이동은, 노승희, 이가영, 방신실, 김민선7, 박현경  정윤지, 김민주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정지효, 배소현, 이다연, 서교림  한진선, 임희정, 이정은6, 김정현, 오수민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홍정민, 2라운드 중간합계 4언더파 139타(66-73) \*14시 30분 기준 공동3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Q. 오늘 경기 마친 소감은?**

오늘 정말 힘들었다. 특히 버디가 하나도 안 나왔다. 기다리면 나오겠지 생각하며 힘 내보려고 했는데, 끝까지 버디를 기록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.

**Q. 어제와 비교해서 뭐가 달랐나?**

어제는 오후 조였고, 오늘은 아침이라 좀 쌀쌀했다. 워밍업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서 특히 초반에 좀 힘들었다. 버디 찬스도 어제보다 적어서 확률이 좀 떨어지겠다고 예상은 했지만, 하나도 없을 줄은 몰랐다.

**Q.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?**

실수도 있었지만, 전체적으로 그린 결을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은 그린 결 계산이 잘 안 됐고, 그 점이 많이 아쉬웠다.

**Q. 지금까지 본인 성적의 만족도는?**

사실 시즌 시작할 땐 큰 기대가 없었다. 그런데 초반에 우승하면서 목표치가 좀 올라갔고, 그 기준에선 오늘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. 하지만 올 초에 세웠던 목표보다는 잘하고 있다.

**Q. 작년과 비교하면 어떤가?**

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. 특히 5월에 성적이 좋았고, 그 외에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.

**Q. 대회 후 2주간 휴식기 계획은?**

체력 훈련을 중점을 두고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. 그리고 골프채 피팅에 대해 공부하려고 한다. 요즘 장비에 관해 관심이 생겼고, 쓰고 있는 장비를 파악하고, 더 잘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맞추고 싶다.

**Q. 남은 이틀, 주안점은?**

최근엔 퍼트 감이 좋다고 느꼈는데, 오늘은 살짝 충격 받았다. 남은 이틀은 퍼팅에 더 신중하게 집중하고, 그린 결도 잘 살피겠다.

**◈ 고지우 2라운드 중간합계 3언더파 141타(71-70) \*14시 30분 기준 공동 6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12>

**Q. 디펜딩 챔피언으로 1,2 라운드를 마친 소감은?**

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전했다.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흐름을 잘 타지 못한 것 같다. 그래도 잘한 점을 꼽자면, 끝까지 잘 참고 버티고 있다.

**Q. 이틀 연속 언더파를 기록했는데 비결은?**

그래도 잘됐던 부분은 아이언 샷이 괜찮았다. 그래서 찬스를 많이 잡았다. 다만, 그린 스피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퍼트가 좀 불안했다. 어느 정도 감각은 찾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풀렸다.

**Q. 지난해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인데, 어땠나?**

작년에 잘했던 홀이 계속 생각났다. “아,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쳤었지” 하면서 좋은 이미지가 떠올랐고,

그걸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. 작년에 정말 잘 쳤다는 생각도 다시 들었다.

**Q. 후반 라운드에선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?**

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, 퍼트만 잘 따라주면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다. 흐름만 타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.

**Q. 남은 라운드에 대한 각오**

이틀은 이미 쳤고, 그동안 흐름이 좋진 않았지만 잘 버텼다. 이제 남은 이틀은 좀 과감하게, ‘버디 폭격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.

**◈ 유현조 2라운드 중간합계 3언더파 141타(70-71) \*14시 30분 기준 공동 6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Q. 오늘 전체적인 경기는 어땠나?**

처음에는 샷이 크게 안 좋다기보단, 거리 조절이 잘 안 됐다. 그린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찬스를 잘 못 만들었고 '보기, 파'가 계속 이어졌다. 그래도 후반에 연속 버디도 나오고,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마무리를 잘 해서 괜찮게 끝냈다.

**Q. 코스와 그린 컨디션은 어땠나?**

오늘은 오전에 쳤는데, 어제 오후에는 풀이 길었던 반면, 오늘은 풀이 짧아서 그린 스피드가 빨랐다. 그 스피드에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웠다.

**Q. 날씨가 선선했는데, 플레이에 영향은 없었나?**

날씨는 선선해서 좋았지만, 바람 때문에 치기 어려웠다. 그래도 시원한 날씨는 괜찮았다.

**Q. 산악 지형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편인데, 본인에게 잘 맞는 코스인가?**

요즘에 산악 지형이 아닌 코스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톱텐에도 계속 들고 있다. 그래서 딱히 지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.

**Q. 이번 대회에서도 톱텐에 들면 7회 연속인데, 알고 있었나?**

몰랐다. 처음 들었다. 미리 알려줬으면 더 신났을 것 같다.

**Q. 계속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?**

작년보다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. 공식 연습 라운드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, 이미 코스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느꼈다. 오히려 체력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.

**Q. 오늘 플레이 중 아쉬운 점은?**

실수가 좀 터무니없이 많았다. 그 점이 많이 아쉬운데, 남은 이틀 동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.